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보수 기금 약정/납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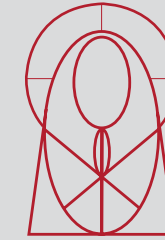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Vesta-Oh LLC	5,000	20	박화성	1,000	39	오경숙	3,000	58	임성주	1,000
2	곽신규	1,000	21	백상현	1,034	40	오석미	1,000	59	장종현	400
3	김도용	500	22	변상민	1,000	41	오용운	2,000	60	전광수	1,000
4	김삼식	1,000	23	변상원	1,000	42	오현주 (부제님)	12,000	61	정진오	1,000
5	김성일	1,500	24	변태용	4,000	43	우성현	1,000	62	채희백	5,000
6	김수완	5,000	25	서경호	1,000	44	유병기	3,000	63	최영옥	1,000
7	김순옥	1,000	26	서인석	1,000	45	윤석로 (부제님)	1,000	64	최영찬	2,000
8	김영필	2,000	27	서정근	1,500	46	윤준희	5,000	65	최완준	1,000
9	김정숙	100	28	성낙순	500	47	이막동	500	66	최현지	2,000
10	김태경	600	29	성순영	500	48	이문식	1,000	67	토레스 은식	2,000
11	나채국	1,000	30	손경진	300	49	이보현	1,000	68	하건철	500
12	문형근	100	31	손영수	1,000	50	이성문	1,000	69	한상철	1,000
13	민병집	1,200	32	손종철	3,000	51	이용문	2,000	70	허중	1,000
14	박덕화	500	33	손흥구	1,200	52	이용범 (신부님)	2,000	71	황분숙	500
15	박동준	300	34	신준호	1,200	53	이재구	1,000	72	황태진	1,000
16	박락준	2,000	35	안을봉	1,000	54	이재서	1,000	73	익명 1	20
17	박병태	1,200	36	안청자	500	55	이종권	1,500	74	익명 2	20
18	박재영	1,500	37	양영길	200	56	이호용	1,000	75	익명 3	1,000
19	박정훈	1,500	38	염기선	3,000	57	임영자	1,000	76	미국신자 (31)	59,225

약정금액: \$170,559/\$300,000 (56.87%), 납부금액: \$93,724/\$300,000 (31.24%)

연중 제17주일

2025년

7월 27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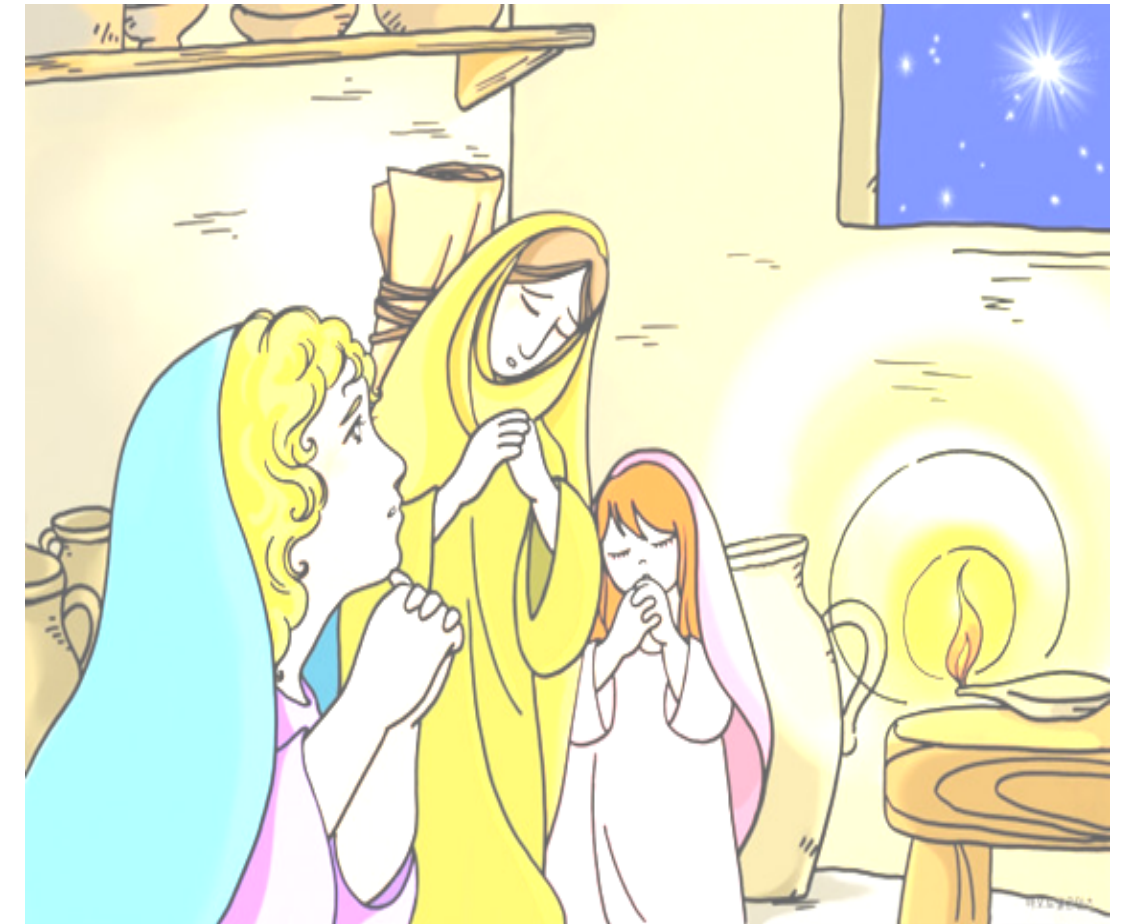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창세기 18,20-32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ㄴ,2ㄱ과 3,6-7ㄴㄷ,7ㄹ-8(◎ 3ㄱ 참조)



후렴. 주님, 제가 부르짖던-날, 당신은 응답 하셨나이다.

제 2독서 콜로새서 2,12-14

복음 환호송 로마 8,15 참조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복음 루카 11,1-13

성가 입당 21 봉헌 211, 340 성체 498, 175 파견 32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이금자(비비안) - 김 스텔라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광창진(스테파노) - 괄루시아
- 황규준(프란치스코) - 황선주(요세피나)
- 김연순(아네스) - 성마카엘라
- 방옥남(마리아) - 박진아(사비아)
- 전호성 백창례 - 전광수(프란치스코)
- 이베드로
조카타리나
- 이영실 - 가족
- Mrs. Phillis Marie Marks - 은식(클라라)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최현지(안토니아)

*** 미사지향 (생미사)**

- 오현주(요한)부제님 - 이막동(아네스)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이막동(아네스) - 반석희
- 박재영(요아킴) 박인자(안나) - 썸머셋구역 박정화(요셉)
- 성순영(라파엘라) 성낙순(미카엘라) - 성마카엘라
- 성낙철(안드레아)
성나희
- 성예희
- 이막동(아네스) - 성안드레아
- 한기숙
- 최정원(레지나) - 유미선(클라라)
- Bert Gabami - 최위숙(울리아나)
- 2025 성령대회를 위하여 - 성령기도회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7/20(주일현금).....\$1,230(130명)
- 교무금.....\$930
- 추승호(5~8) 김삼식(7~8) 박종화(8~9) 윤준희(7)
- 김영숙(7~8) 임성주(6~7) 장수지(7~9)

*** 새로오신분, 방문해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성당(채플)은 성체가 모셔져 있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7/8월 빵과 포도주 봉헌**

- 7/27 박재영 박인자 8/3 홍스텔라 배미리암
- 8/10 조로사리오 조로사리아 8/17 엠베드로 엠세실리아
- 8/24 김제노 김아그네스 8/31 나브르노 성라파엘라

*** 친교 봉사 일정**

- 8/17 에디슨 9/21 올드브릿지 10/19 이스트 브런스윅
- 11/16 피스브릿지 12/21 노스브런스윅 1/18 렛거스 2/15 먼로
- 3/15 메타천+노스에디슨 4/19 사우스브런스윅 5/17 썸머셋

*** 오늘 미사 후 고 성경숙(아가다) 자매님의 유가족분들께서 교우분들에게 점심을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가대에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신자분들은 지휘자님께 (황선주 요세피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목회의**

일시/장소: 7월 27일 (주일) / 미사후 친교실

*** 메타천 구역 모임**

일시/장소: 8월 2일 (토) 오전11시 / 이순분 발바라 자매님택

*** 썸머셋 구역 모임**

일시/장소: 8월 3일 (주일) / Luigi's Pizza (someset)

*** 꾸리아 월례회의**

일시/장소: 8월 10일 (주일) / 미사후 친교 대회의실

*** 뉴욕/뉴저지 청년 선택 주말 (NY/NJ Choice Weekend)**

날짜: 8월30일(토) 10am - 9월1일(월) 3pm
 참가대상: 1987 - 2003년생 청년 미혼 남녀 (한국어권 영어권)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y Rt 206, Newton, NJ 07860
 참가신청: www.choicenynj.com (7/7 - 7/27, 선착순 30명)
 참가문의: choicenynj@gmail.com
 참가비: \$275 (\$50 non-refundable deposit)

*** 2025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5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분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지난주까지 약정된 금액은 \$40,441.60 (목표금액의 103.7%)입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이나 큰가구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미리 상의해주세요.

*** 제 1독서 창세기 18,20-32**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쉰 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쉰 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쉰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쉰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마흔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콜로새서 2,12-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루카 11,1-13**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줄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